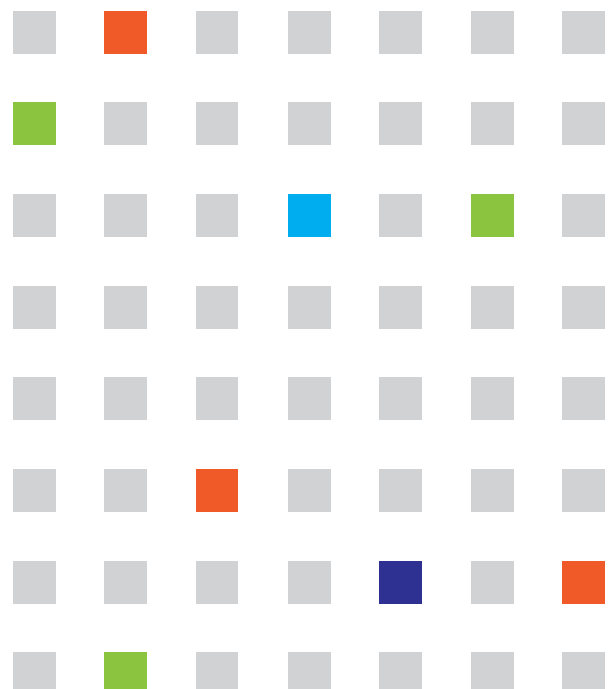


2022년 6월 AML REPORT

1. 자금세탁방지 동향
2. 자금세탁방지(AML) 제도
 - STR 임의보고 제도



(1) 미정부, 대북제재 위반한 러시아은행을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

- 미정부는 제재대상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극동은행 (Far Eastern Bank)와 스푸트니크은행을 제재 리스트(SDN) 명단에 올림 (세컨더리 보이콧 제재*)

* 세컨더리 보이콧(Secondary Boycott) : 제재대상자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(금융기관 포함) 및 개인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함

-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도발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, 금차 美정부의 조치는 대북제재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됨.
- 미재무부 관계자는 “북한 정부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외국 금융기관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”고 말해, 향후 추가적인 제재가 예상됨

☞ 시사Point : 북한 등 제재대상자 관련 거래 시에는 세컨더리보이콧 제재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

(2) 금으로 자금세탁하는 신종 수법 등장

-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을 금으로 자금세탁한 후 현금화해 해외 총책에게 송금하는 등 신종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됨
- 조사 결과 범죄 조직은 태국에 본부를 두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주로 국내 50~60대를 상대로 메신저를 통해 자녀를 사칭하며 범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함
- 경찰기관은 “범행 피해액을 금으로 수거하며 수사 지연과 혼란을 유도하는 등 범죄가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”며 범죄 예방과 신속한 신고를 당부

☞ 시사Point : 진화하는 자금세탁 신종 범죄에 대한 주의 요구

(3) 美기관도 ‘테라’ 사태 정조준 ! ‘자금세탁’ 의혹도 조사

- 국내 검찰과 경찰이 테라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, **미국 수사기관 및 정부기관까지 가세하면서 테라 사태 관련 파장이 커지고 있음**
 -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 측은 최근 테라의 핵심 설계자 일부를 대상으로 테라의 부실한 설계 구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,
 -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권도형 대표 등의 **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짐**
- ➡ 시사Point :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위험도 매우 높으므로,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

(4) 북한 IT인력 수천명 해외 위장 취업, 핵·미사일 자금 조달

- 미국 정부는 **북한 IT인력이 다른 국적으로 위장한 후 해외 취업하여 북한의 핵·미사일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주의보를 발표**함
 - 북한이 노동인력을 해외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에 파견하다 유엔 제재에 가로막히니, 이젠 수천 명의 IT인력을 한국인이나 중국인으로 위장해 해외에 취업시켜 핵·미사일 개발을 위한 ‘외화벌이’에 활용하고 있으며,
 - **위장시킨 IT인력을 통해 기업 정보를 빼돌려 해커 활동을 지원**하고 있다고 함
 - 이러한 **북한 IT인력의 고용을 막기 위해선 중국 기반 은행계좌 결제 플랫폼을 이용하거나,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송금을 요청하거나, 하나의 계정에서 다양한 IP 주소로 짧은 시간에 다중 접속하는 경우 주의**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
- ➡ 시사Point : 북한 IT근로자의 해외위장 취업! 주의 필요

(1) STR 임의보고

□ STR 임의보고란?

STR 추출물에 의해서 검출된 거래 건은 아니지만, 고객의 거래가 자금세탁 행위로 판단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보고

※ STR 임의보고권한 확대시행('22.5월)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보고 권한자	자금세탁방지 책임자	농협은행 소 직원

□ STR 임의보고대상

- 고객이 불법재산의 은닉 및 수수와 같은 자금세탁행위,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, 강제집행의 면탈 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
- **금융회사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**

[참고 : 금융감독원 관련 지적사례]

- ▶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**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**하여야 하는데도,
- ▶ 대출고객 000을 대출 관련 사기혐의로 **수사기관에 고소하였음에도** 이를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**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지 않음**

□ 유의사항

- 고객의 거래가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임의 보고를 이행해야 함
- **주거래 업체 임직원 또는 당행 임직원 거래라 할지라도 일반고객과 차등 없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거래모니터링을 수행하고,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필히 이행**

(2) STR 임의보고 처리 절차

1.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「의심거래 임의보고」 화면 접속

- NH통합로그인 → 관리정보2 → [은행]자금세탁방지 → 혐의거래보고
→ Alert(점검대상거래) 관리 → 의심거래 임의보고 클릭

2. 임의보고 기준 선택

- 임의보고 클릭 → 임의보고 기준 택일
- ① 거래자기준 : 보고하려는 **거래자의 실명번호**를 알고 있는 경우
 - ② 거래기준 : 보고하려는 **거래정보**를 알고 있는 경우
 - ③ 계좌기준 : 보고하려는 **계좌정보**를 알고 있는 경우